

2015년 4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5.4.21(화) 15:00~16:3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심층적이고 균형 있게 보도해야

- 3월 31일 '뉴스12' 노사정위 대타협 시한 임박...이건 팽팽 기사에서 대타협 시한이 31일 자정까지만 통상임금 법제화,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제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등 팩트 위주의 내용만 전달해 다소 아쉬움이 있었음. 이런 기사의 경우 연합뉴스TV의 강점인 연합뉴스의 해외 특파원들을 활용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인 해외 사례들을 함께 소개해 주었더라면 더 알찬 기사가 되었을 듯함(성낙용 위원)
- 7일 '지방시대' 경남도지사-교육감 유상급식 후 도의회 첫 만남 기사에서 경남 지역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밥을 지어주기 위해 학교 안에 가마솥이 등장했다는 소식과 급식비 납부 거부, 급식 발전기금 모금 등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내용 등을 함께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성낙용 위원)
- 12일 '뉴스01' 국민안전처 신설 대한민국 안전 현주소는? 내용에서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을 합친 '공룡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짚어보았는데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신설된 조직에 대한 평가는 적절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다소 미흡했음. 신설된 국가안전처의 전체조직의 역할과 새롭게 정비된 것은 무엇이며, 조직이 불안정한 것이 단순히 보직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인지 그렇다면 각 부처의 알력 및 불협화음 때문은 아닌지 등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해 보였음(성낙용 위원)
- 12일 '뉴스01' '각국의 성매매 대응 천차만별' 내용에서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 대해 조사하여 보도한 것은 성매매 처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의 국가는 성매매피해자를 낙인시키는 우려 때문에 성매매수자만 처벌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정보였음. 아울러 성매매특별법 위헌 재소에 대한 내용을 다시 짚어 주면서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의 배경, 성매매특별법의 내용 및 법 취지 등도 함께 설명해 주었다면 잘 짜여진 보도가 되었을 것임(성낙용 위원)
- 20일 '눈치보는 미생...70%가 휴가 못가' 내용에서는 조사내용의 출처가 없고 상사와 동료 눈치 때문인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는지 생각해봄. 현행 노동법에서는 휴가를 하루라도 안 쓰면 유급임 결국 유급, 무급 문제가 큰 것이 아닌가 함. 눈치 시각이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을 구체화 했으면 좋지 않았

을까 함(이용우 위원)

- 10일 '대형마트가 소비자를 기만했다' 라는 내용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음. 특정기간동안만 싸게 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할인된 가격 그대로 판매를 한다든지 오히려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더라, 공정위가 대형마트 미끼상품을 조사 중이다, 할인행사를 위해서 협력업체들에게 납품마진을 내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임.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대형마트들에 대해 비판적인 부분이 있지만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지만 가격을 내리거나 유지했다는 것은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함. 공정위 미끼상품은 조사 중이라는 것이 조사결과가 불법적인 내용이라고는 한 것은 아니며, 협력업체 납품마진 내리라고 압박했다는 것은 가령 전자제품의 경우 가격이 떨어지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에게 납품 마진을 유지해주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되는 문제도 있음. 가격은 제품에 따라 높았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으므로 순환하는 구조도 고려해야 함(이용우 위원)
- 2일 '뉴스초점'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첫 공개변론을 갖는다는 보도와 함께 전 중앙경찰서장이 출연하여 생계형 여성과 가난하고 성적으로 소외된 남성은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며, 성매매특별법 위헌을 주장함. 이 프로는 집창촌의 합법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시청자에게 하면서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한 의견만 전달됨. 반대의견을 가진 패널도 함께 출연하여 합법화 반대의견도 함께 전달되었으면 균형 잡힌 보도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음(김용주 위원)
- 20일 '갤럭시6 출시' 관련해서 예약구매자들에게는 출시당시에 정해진 보조금 가격으로 판매했다가 이후 보조금을 올려 가격이 내려가 구매를 서두른 충성고객들이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보도였음. 비슷한 내용으로 10일에는 갤럭시6 는 출시전에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해 보는 시각이 반대였음. 기업의 기본적인 행태 또는 경제의 기본원리와 배치되므로 보다 신중해야 함(이용우 위원)
- 모든 방송언론매체들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사회면의 대부분 기사는 대부분 폭행, 살인, 사기, 사건사고 내용들이고 미담기사는 찾기가 매우 어려움. 언론에서 어두운 면을 밝히는 것도 의무이지만 사회의 밝은 면에 대한 보도도 함께 밝혀서 균형을 이뤘으면 함(이용우 위원)

▲ 사건사고 보도시 유의사항 및 뉴스 아이템 등 고민해야

- 2일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보도에서 서울대 교수의 성함과 사진을 보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범죄 보도는 범죄행위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익적인 보도가 아니면 범죄자의 신원보도는 익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김용주 위원)
- 17일 '카메라시선'은 취재 현장을 시청자들에게 생동감 있게 영상으로 전달하는

신선한 프로이지만, 이완구 총리가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현장보도는 이 총리에게 막말을 하고, 심지어 이 도둑놈아 등 욕설이 여과 없이 보도되어 방송내용으로는 부적절함(김용주 위원)

- 사건 사고기사의 경우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함. 8일 생후4개월 된 딸을 살해해서 유기한 미혼모를 구속했다...는 내용은 시청자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나 생각함(이용우 위원)
- 뉴스 라운드 내의 뉴스 매거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움. 뉴스 가치도 낮고 산만하다는 느낌이 듦. 4월 7일에는 "오바마 댄스실력"이 나오고, 4월 10일에는 "아이비리그 합격한 흑인 학생"을 다루는 등 뉴스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뉴스 매거진에서 어떤 뉴스를 다룰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우리의 현실에서 북한 뉴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기사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아이템이 과연 뉴스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4월 14일에는 북한의 나무심기 화면을 보여주고, 4월 15일에는 태양절 각종 행사를 보여주는 등 북한 관련 뉴스가 무분별하게 선정되는 것 같음(최현철 위원)

▲ 화면구성 및 부적합 표현, 자막오류 개선노력 필요

- 아침 '뉴스브런치' 연합뉴스 주요기사는 잘 정리돼 전달되고 있어 유용함. 기사 전달시 배경으로 보도국 오피스 화면이 처리되고 있었는데 책상 위의 난 화분 등을 보여주는 것이 어색한 부분이었음(양승찬 위원)
- 스튜디오 안의 앵커 뒷배경 역시 가운데 스크린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임. 오피스 장면이 화면의 테두리 배경에 섞여 있어 다소 어수선 한 분위기에서 집중이 어려울 수 있음(양승찬 위원)
- 화면에 너무 많은 콘텐츠를 넣다 보니 시청에 현란하고 보기 어려워 정리가 필요해 보임. 많은 날은 한 개의 화면에 11개의 콘텐츠가 들어있었음(이용우 위원)
- 자막과 내용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청자의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예를 들어 주시후레시, 새우깡 등 가격이 20년 전보다 가격 3~4배 올랐다는 내용은 어떻게 올랐는지 과학적인 통계수치를 활용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했으며, 7일 뉴스현장에서 초등생 중고생 못지않게 영어공부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통계수치가 스마트 기기를 통한 학습시간으로 통계를 조사한 것은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은 아닌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실제적인 통계치를 비교해 보아야 함(김연화 부위원장)
- 10일 '대형마트가 소비자를 기만했다' 라는 내용에서앵커는 대형마트들의 악행은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껍질 같습니다. 라고 표현 했는데 표현에 적정선을 유지해서 방송의 격에 맞추어야 함(이용우 위원)
- 12일 '뉴스 17' 주요뉴스 헤드라인 소개에서 화면에 제시된 제목은 세 번째 완연한 봄 날씨, 네 번째 세월호 참사 1주기 였으나, 아나운서 소개는 앞뒤가 바

뀌어 방송됨. 즉 세 번째 완전한 봄 날씨 화면 제공하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 기사 내용을 소개함(강대인 위원장)

- 19일 오후 4시 새누리당의 당정청회의 현장을 연결하여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원 의원의 직함을 '새누리당 정치위원장'이라고 잘못 소개했음. '정책위원장'의 오기였는데, 인명, 직함 등을 소개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음. 실시간 뉴스 스크롤의 경우도 오기나 지나친 줄임말을 사용하여 시청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강대인 위원장)
- 화면 아래 띠 자막 기사 앞뒤 문맥이 없이 제시되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음. 4월 10일에는 "검찰 안타깝다"라고만 제시되어 무슨 말인지 의아했는데 이는 "검찰, 성완중 자살 안타깝다"로 써야 하는데 성완중씨가 빠져 있어 이해가 안 된 것. 4월 13일에는 "나 옆 사장인데 외상거래 빙자 사기범 구속"이라는 뉴스가 제시됐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4월 14일에는 "히스패닉 총아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뉴스가 제시되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쓰지 않아 대체 어느 나라의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는지 이해가 안 됐음. 이처럼 자막 기사를 보낼 때에는 문맥이나 문장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함(최현철 위원)

▲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의견

- 4월 12일 '뉴스21' 에서 일기예보 뒤에 뮤직에세이가 봄나들이 가지 못한 시청자들을 위해 화면에 꽃이 가득하고 음악이 함께하면서 너무도 좋다고 느낄 때 중간에 끝나버리니 너무도 허망했음. 전체 시간 배열을 통해 되풀이 되는 중간중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대로 배치가 되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이용진 위원)
- 4월 12일 '김민전,박상현의 정정당당'에 참여한 패널들은 각각 본인의 논리를 제대로 풀어주며 재미를 더했고, 특히 직전까지 성완중 회장의 담당변호사였던 오 변호사를 패널로 참여시킨 것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매우 좋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음. 그러나 '성완중 리스트 8인의 해명'을 방송하며 8인의 해명을 장시간 방송하는 것은 물론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본인들의 해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장시간 보도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특히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총리의 해명은 두 차례나 반복해 보여주고 첫 번째는 1분 이상 방송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매우 불편했음(이용진 위원)
-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음. 1주기 추모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들은 성완중 리스트와 관련된 의혹 보도에 여념이 없었고, 연합뉴스TV도 예외가 아니었음.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기획특집이나, 국민안전에 관한 특보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음. 물론 뉴스의 한 꼭지로 이러한 부분을 다루기는 했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연합뉴스TV의 경우 다른 매체와 달리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방송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최진영 위원)

-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과 관련된 프로그램 방영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임. 과학교육, 과학다큐 등 뉴스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은데 세계 물포럼 중계 이외에는 과학기술 관련 소식을 접하기 어려웠음. 특히 과학의 달에는 전국에서 7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과학행사들이 개최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다양한 보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길 바람(이헌규 위원)
- 3월부터 신규 개설된 '바로보는TV 옴부즈맨'을 보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뉴스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와 방송에 대한 객관적 비평, 칭찬 등을 들을 수 있어 프로그램과 시청자가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특히,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코너는 앞으로의 보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면 좋을 것. 향후 시청자평가원을 구성할 때 전문직(교수, 변호사 등)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 직업 등을 갖고 있는 시청자군의 참여를 권장함(이헌규 위원)
- '명품 리포트 맥'은 기자들이 직접 기사를 분석해서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취재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함께 맥락적인 배경 설명, 전문적인 평가 등을 전달하여 주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향후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음. 다만 프로그램 제작 시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등의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구성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음. 뉴스 정보 전달 프로그램에서 효과음향을 사용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 수준에서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음(양승찬 위원)
- 연합뉴스TV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전문가와 대학생들의 평가를 전달하고 있음.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없는 가운데 보도 비평을 이 프로그램에서 수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이 조금 더 정리되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취지를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양승찬 위원)

▲ 현장 중계 · 리포트 관련 의견

- 4월 21일 과학계 글로벌 행사인 제7차 세계 물포럼이 대구에서 개최되었는데 현장연결을 통해 중계를 시청할 수 있어 좋았음. 국제행사나 회의는 대중의 접근성이 어려운데 현장중계는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인터넷, 모바일로도 원활히 시청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여겨짐. 그러나 여전히 연결 시 버퍼링이 길어지거나 끊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홍보하고, 보다 많은 시청자를 유치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이헌규 위원)
- 한 기자가 담당하 리포트 아이템이 프로그램에서 전달된 후 동일 프로그램에서 현장 연결 소식을 전달했는데, 앞에서 기사를 전달한 기자가 또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지속적으로 취재 기자 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한 기자가 담당하는 기사가 몇 건인지 궁금함(양승찬 위원)

▲ 긍정적인 평가

- 12일 '뉴스 17' 보도 중 리비아 트리폴리 한국대사관 IS공격으로 경비원 2명 사망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였는데, 사전 준비된 뉴스를 뒤로 미루고 긴급뉴스를 처리한 것이 좋았음(강대인 위원장)
- 13일 오후 7시 20분 '북한은 오늘'에 장용훈 북한 전문기자가 출연하여 북한의 최근 소식을 다루었는데, 외부인사의 출연보다 전문성이 돋보였음. 최근 내부인사를 활용하는 시도가 좋음(강대인 위원장)
- 17일 '미니다큐 오늘' 제72화 추억의 장터, 벼룩시장에서 "추억의 장터, 벼룩시장" 모습은 사람냄새가 나고 옛날 추억을 연상하게 하는 등 아주 훈훈하고 즐거움을 주었음(김용주 위원)
- 3월 30일 '뉴스1번지' 안심대출 연장판매...가계부채 해소될까 내용에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20조원 늘려 총 40조원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연장판매하기로 한 가운데 안심전환대출의 목적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택담보 대출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해소와 매년 1,100억 원 정도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 정금리 대출자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 제2금융권으로 확대의 어려움에 대한 배경과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 그 간의 궁금증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어 좋았음(성낙용 위원)
- 4월 18일 월드리포트 'That's Why?'에 방송된 시리아 시민기자들의 이야기는 시리아 내전의 실상을 기존 언론의 관점이 아닌 시민들이 바라보는 프로그램으로 IS와 정부군 사이에서 전쟁의 공포를 느끼는 시민들의 공포와 참혹함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공감을 가질 수 있었음. 단순히 해외이 단편적 뉴스 전달이 아닌 감동을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자주 시청하게 됨(이용진 위원)
- 클릭 베스트 컷은 한주의 주요 사건을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며 재조명해주는 프로그램이어서 자주 시청하는데 4월 18일 방송된 '세계 베게 싸움 축제' 영상은 현장감도 있으며, 재미를 주어서 더욱 좋았음(이용진 위원)
- 4월 19일 방송된 기업비사 '대우그룹의 몰락' 프로그램은 균형 잡힌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애쓴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좋았음. 특히 그 당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생동감 있게 그 당시 증언을 해준 것이나 세계경영이라는 앞서는 노력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은 적절했다고 보임. 개인 김우중의 대우 그룹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대우그룹을 재조명한 것은 신선한 의도로 보였음(이용진 위원)
- '연합'이라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빠른 전달과 현장감 있는 보도를 지향함에 있어 현장연결(생중계)을 통해 뉴스를 다양하게 구성하면 좋겠다는 의견. 15일에는 세월호 1주기에 대한 소식을 위령제 현장 및 유가족의 모습을 현장에서 기자가 직접 리포트 하며 전달한 부분도 기존의 뉴스와는 차별화된 보도였음(이현규 위원)

- 4월 달부터 연합뉴스TV 기자들이 법조기자단 풀에 가입되었다고 들었음. 신생 매체로서 연합뉴스 법조기자들이 법조기자단 풀에 가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군분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 이번에 기자단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임. 연합뉴스TV의 법조기자단 가입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좀 더 풍부하고 심층적인 법조 관련 보도를 기대함(최진영 위원)
- . (끝)